

11/18/22

설교 제목: 대제사장의 기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7 장 1-26 절

- (요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요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요 17: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 (요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 (요 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 (요 17: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요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 (요 17: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 (요 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 (요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요 17: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 (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 (요 17: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 (요 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요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요 17: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 (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요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 (요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만찬 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상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여 재림 전까지 이어질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5 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 (9-19 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20-26 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리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요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에서 ‘때’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번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까닭에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요 7: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8: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는 것이 영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것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죽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프로젝트를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와 상호 행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과의 계약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킨 아들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천하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인간 구속 사역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원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과 모든 경험을 통해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과 '만민'은 다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만민'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 권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도록 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권세를 선포하신 것은 이미 십자가 죽음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심으로 당신이 구원자 곧 메시아심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직 십자가 사역을 끝내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시며 창세 전부터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며 영화를 누리셨다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원래의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길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 17: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요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영접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진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나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요 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 17: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들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에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요 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요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 17: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으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 17: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며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모든 믿는 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구하신 것입니다.

(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요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땅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 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자 무리가 예수님을 좇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 년 10 월 5 일 대속죄일 (Yom Kippur) 부터 희년 (Jubilee) 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년 중에 맞는 2022 년 수전절 Hanukkah(하누카)이 오늘 18 일부터 시작되어 26 일 끝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기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징조로 보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을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개 (repent)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서 만납시다.